

<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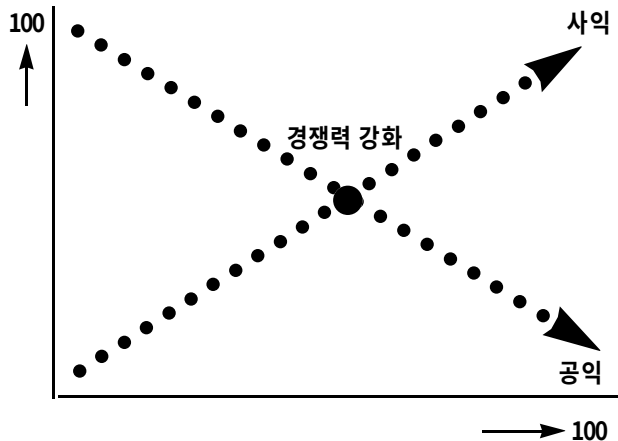
국가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

한국 화학산업계에 풍랑과 격랑으로 점철됐던 1993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부터 공급과잉으로 독감에 걸려 헉헉대던 석유화학을 비롯, 다국적 화학기업과 일본의 등쌀에 혼쭐을 뺀 정밀화학·소재산업, 수요감소와 동남아의 신·증설로 불황에 접어든 섬유, 중국산의 홍수에 무풍지대로 서 있던 무기화학 등 어느 한 구석도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화학제품을 대량·질적으로 소비하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수요산업은 때 아닌 호경기를 맞아 그런대로 화학산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하기가 건축경기가 사그라 들어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별 진전은 없었다.

특히, 화학산업은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발, 생산능력이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요 증가만으로는 수급 균형이 어렵고, 전 산업의 활황기에만 수요가 급신장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3년은 예고된 불황기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1994년도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럽은 구조적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오히려 짐스러운 상태이며, 동남아는 자급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 일층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은 계속적인 활황이 예상되고 있지만 건축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 경제도 밝지는 않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가지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패와 무사안일, 그리고 체질화된 무경쟁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개혁의 과도기화가 예상보다는 오래 지속돼 어떤 기폭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가 1993년 12월15일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가 한 마당으로 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이 어떻게,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즉, 내우외환이 겹쳤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화학산업 부문은 UR 타결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석유화학이 세계적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오늘 또는 내일 당장에 UR의 관세인하 덕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화학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 화학산업 관계자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또 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의 방안이 무엇인지도 대충은 감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시행하지 않았거나 실천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 절대적 필요성을 덜 느꼈을 뿐이다.

여기에 스스로 행동하는 실천력이 결여된 것도 크게 작용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는 과제

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의 체질을 바꾸어 화학산업, 아니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온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는 점 인식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기업과 산업 나아가 국가를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협력정신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우리」를 강조하면서도 「우리」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몸에 밴채 살아온 것이 사실이고, 이를 버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점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가 아닌 산업 전체의 발전 토대 위에서 내 기업이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바탕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나 기업이나 국가속에서 존재하는 한, 절대적인 도덕적 토대라는 점 강조하고 싶다.

<화학저널 1993/12/20 · 27>